

■ 특별기획 : 박원순 철학 뒤집은 한전부지 개발

①제2롯데월드 20년, GBC 2년...특혜·줄속 의혹명예리

공공기여금 1조7400억원에 용도변경·인허가 일사천리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조계종단과 봉은사가 망실한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까다롭게 진행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건축 인·허가 절차가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조건으로 1조7400억원의 공공부담금을 내놓기로 한 현대차그룹에 대한 특혜와 서울시의 줄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2롯데월드타워와 GBC센터 건립과정을 비교해보면 GBC센터 건립이 특혜와 줄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롯데월드타워는 개발계획 발표 이후 20여년에 걸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만큼 더디게 진행돼 왔다. 반면 GBC센터 건립사업은 2년도 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는 등 전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1조7491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

6개월여 정도 걸리는 셈이다.

문제는 2년6개월이 초대형 건설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종 규제와 민원으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GBC계획과 유사한 제2롯데월드 건립은 1987년 부지 선정 이후 2009년 건축인허가가 완료되기까지 22년이 걸렸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1994년을 기점으로 삼더라도 1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삼성화재가 2011년부터 서울 인사동 옛 대성산업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호텔 및 상업시설은 GBC보다 규모가 훨씬 작지만 4년만인 2015년 12월에야 세부개발계획 심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건축심의를 아직 남겨 놓고 있으니 추진속도가 GBC 개발 계획 보다 2배 이상 느리다. 이를 보더라도 현대차그룹 GBC 건립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행정은 배려를 넘어 특혜이자 줄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살만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한전부지 개발을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 12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박 시장도 후보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한전부지를 강제로 매입한 과거 박정희 정권이 보인 행태와 유사하다. 박정희 정권은 당시 1년 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전부지가 포함된 남서울개발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 얻은 부당한 이익금을 획득했다. 이 돈이 청와대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던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는 한전부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서울시가 지난달 도시건축공동위를 통과시키는 등 한전부지 개발계획을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GBC개발 과정의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서울시라는 시정철학을 뒤집으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내년 대선 출마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3240호 특별기획

②시정철학 '2030계획'은 허구인가

삼성화재 인사동 상업시설 건립은 계획안 심의 4년...건축심의 남아

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합의가 이같은 결정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내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향후 행보와도 무관치 않으리라 관측이 적지 않다.

한전부지 개발은 2014년 9월 10조5500억원에 현대차그룹에 매각된 이후 시작했다. 6개월여의 부지 개발 사전협상 기간을 거쳐 2015년 2월 GBC 건립계획이 발표됐다. 사전협상 결과,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에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연면적 92만㎡에 이르는 105층 메인터와 호텔, 컨벤션센터 등 6개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GBC를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105층 빌딩 포함 GBC 건립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졌다. 이후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국토부 산하 수도권정비위원회의위원회와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하면 인허가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지 매입부터 착공까지 2년



본사 부설 '사람과 사회'는 지난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자비와 나눔 행사'를 거행했다. 사진은 개회식 후 조계사 경내에 차려진 19개 사회적기업 부스를 돌며 직접 제품을 구입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내빈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3대 종교 '따뜻한 공동체' 위해 힘 모으다

본사 부설 '사람과 사회'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비와 나눔 행사' 개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3대 종교가 손을 잡았다. 불교신문사(사장 주경스님) 부설 '사람과 사회'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3대 종교 자비와 나눔 행사'를 지난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거행했다. 소외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고 장려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가톨릭 서울대교구 유경춘 주교,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김영주 총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영길 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참석자들의 열띤 박수와 3대 종교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담은 동영상 상영으로 막을 올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3대 종교가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인연"이라며 "앞으로도 종교계가 힘을 합쳐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부처님이 가르친 자비는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일 것"이라며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어떻게 회향할 것인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도 돕겠다"고 강조

했다. 이어 불교신문 사장 주경스님과 종교계 인사들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며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내용의 3대 종교계 비전을 선포했다.

개회식을 마친 뒤 자리를 옮긴 주요 내빈들은 조계사 경내에 차려진 19개 사회적기업 부스를 돌며 직접 제품을 구입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정보와 경영기법을 교환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수익 창출과 함께 일자리와 복지 전통문화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를 가리킨다. 현재 불교계에는 60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中 샤먼국제불사용품전람회 10월20일 개막

20여개국 참여 세계최대 규모
서울불교박물관 '한국관' 운영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11회 샤먼국제불사용품전람회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중국 푸젠성 샤먼시 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열린다. 샤먼불사용품전람회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장해 11만5000㎡ 면적에 630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된다. 이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10배가 넘는 면적으로 규모와 교역량에서 세계 최대 불교산업전시회다.

서울국제불교박물관이 불교전통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불교축제의 성격을 갖는데 반해, 샤먼불사용품전람회는 생산자 그룹과 소비자가 만나는 교역에 초점이 맞춰진 거대한 시장이다. 일반 전시회의 마지막 날은 일반 관람객이

분비는 주말의 일요일인데 반해, 샤먼전람회의 마지막 날은 월요일이다. 이는 규모가 큰 상단의 최종 조율은 주로 마지막 날 이뤄져, 이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등 20여 개 국가가 참가하며, 매년 20~30%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하루 평균 관람객 5만명, 전체 관람객 25만명으로 올해 전람회에도 또 다시 기록은 갱신될 전망이다. 서울국제불교박물관은 연속 3회째 독립부스로 한국관을 설치해 참가한다. 연이은 현지의 호평 속에 올해 한국관은 24부스, 15개 업체가 참가한다.

▶관련기사 12면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모연

- ARS모연 : 060-700-1027
- 문자모연 : #2540-1027로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 창에 사찰명 또는 개인이름 입력)
-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계좌번호2조계종사무국)
- 모연문의 : 02-730-6690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 수능 앞둔 수험생을 위한 명상 13면



201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 삼화사수록재

국향지질 귀객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하늘과 땅(天地), 저승과 이승(冥陽), 사성과 육법(水陸)의 모든 존재들이 무차평등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 삼화사수록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이는 조선초 삼화사에서 설행되었던 삼화사수록재의 유형·무형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시키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수희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두타산삼화사국행수록재대재보존회장 효 림

| 일시 | 2016. 10. 14(금) ~ 16(일) (3일간)

| 장소 | 두타산 삼화사

| 문의 | 보존회 사무국 033)534-7661~2

○ 행사내용 ○

- 첫째날 : 시련·대령 (오전9시)
법요식 (오전 11시)
조전점안 / 괘불이운 / 쇄수결계 / 사자단
- 둘째날 : 오로단 / 상단 / 헌다례 / 설법 / 중단
- 셋째날 : 방생 / 하단 / 금강경독송 / 봉송회향

| 주최 | (사)두타산삼화사국행수록재대재보존회 | 후원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청, 강원도, 동해시, 대한불교조계종, 오대산월정사, 삼화사산도회